

예술가와 차 한 잔



“살면서 표현 못했던 이야기들 그렸죠”

26일부터 한달간 갤러리현대 초대전 간결한 선·점으로 검은 소 무리 표현 ‘소의 침묵’ 연작 등 최근작 35점 선배

황영성 화백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소에게 여물도 주고 풀을 뜯기며 등에 타 보기도 하고 그 깊은 울음소리와 낮은 울음소리를 듣고 자랐죠. 그 어렵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은 멀리 흘러갔지만 그 시절 그리움은 가슴 속에 아련히 파도처럼 밀려 오곤 합니다.”

황영성 화백이 말하는 소 이야기다. 반세기 동안 꾸준히 우직한 소처럼 그림이라는 노동력을 갈며 ‘가족 이야기’를 그려왔던 황 화백이 소의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어린시절 함께 보낸 큰 눈망울의 조용한 흰 소, 웅크리고 앉아있는 1980년대 소 연작의 소 대신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소의 침묵’ 연작의 소는 간결한 선과 점으로 표현된 검은 소다.

오는 26일부터 한달간 서울 갤러리현대에서 초대전을 갖는 화백을 최근 만나 전시 이야기를 들었다.



“소는 말은 없지만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었죠. 살면서 내 속에 쌓여있던, 표현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소의 침묵’이지만 제 그림은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황 화백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갤러리현대 전시 ‘소의 침묵’ 연작을 중심으로 최근작인 ‘계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한시를 소재로 한 시화 연작’ 등 35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서울 갤러리현대에서 10년만에 여는 전시이자 갤러리현대에서만 4번째 초대전이다. 화백은 1980년 9월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 때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했다. 갤러리 대표가 첫 만남에서부터 40여년 동안 지나간 세월, 작가를 지켜본 본심이다.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를 시작으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등 전시를 보고 나는 화가도 아니구나 위축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이 빠져서 돌아왔지만 그 후 1990년 1년동안의 아메리카 대륙 여행 등 많은 곳을 둘러보고 여러 곳의 문화를 살펴 보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원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의 침묵’

생각도 하게 됐죠. 오백나한상처럼 제각기 다른 형상들이 반복과 연속을 거듭하며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제 그림은 그런 과정을 통해 생겨났죠.”

화백은 굴곡된 시대를 지나오는 여러 과정 속에서 자신의 침묵이 진실을 얼마나 밝게 작업 속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에서 침묵하는 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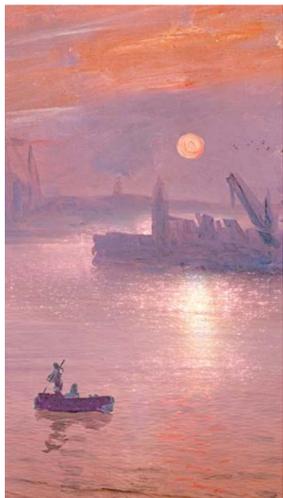
“소팔아서 아들, 딸 결혼시킨다는 등 우리나라에서 소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소는 내면적인 의미가 있는 동물입니다.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지만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죠. 우리 민족의 모습과 닮았어요. 나의 모습과도 닮은 듯 하고요.”

화백은 “요즘 소에 대해, 침묵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며 “침묵의 진실한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수 기자

이이남 작가 부산 초대전 ‘진리를 위하여’

내달 20일까지 서울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이이남 작 '모네-해돋이'

미디어아트에 선구적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미적, 개념적 표현을 위해 연구하는 이이남 작가의 신작이 부산 서울아트스페이스를 통해 발표됐다.

이이남 작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서울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전관에서 ‘Dare to be True: 진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영상 및 평면 신작 20여점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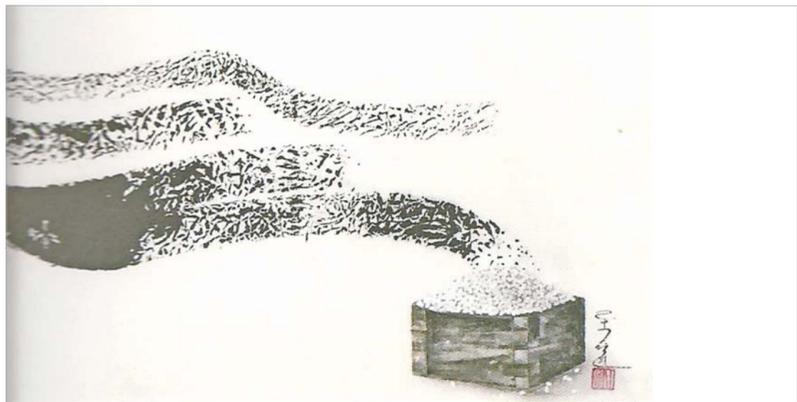
전시 제목인 ‘Dare to be True: 진리를 위하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작품 형식에 대한 실험 외에도 현대의 정의실현을 향한 작가의 가치와 발언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평면 작품에서는 영화나 TV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의 슈퍼영웅들이 대거 등장한다. 독수리 오형제, 건담,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 불의에 맞서 진리를 위해 투쟁하

는 강렬한 캐릭터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의 표정을 드러낸다.

쇠라, 모네, 고흐 등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인상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실험한 영상작품도 소개된다. 색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쇠라의 대표작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재해석한 신작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시각착오’는 규칙적으로 작은 점을 찍어 올린 색채 기법을 디지털 비트로 변환해 보여준다.

또 다른 인상주의 대가인 모네는 같은 소재를 유사한 구도와 다른 분위기로 반복해서 그려나가는 ‘연작’의 형식을 선택해 변화하는 날씨와 대기의 조건,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이남은 모네의 ‘해돋이’를 세 가지 버전의 영상으로 나누어 또 다른 느낌의 연작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인다. /이연수 기자



서원길 작 '따뜻한 나눔'

‘무등그래픽 오늘회’ 21번째 회원전

14~18일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무등그래픽 오늘회(회장 정원석) 21번째 회원전이 14일부터 18일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1층에서 열린다.

무등그래픽 오늘회는 광주를 비롯해 고흥, 순천, 곡성, 목포, 장성,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양화·서양화·서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의 회원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976년 ‘무등그래픽디자인회’에서 출발해 2015년 ‘무등그래픽 오늘회’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 목포 전시에 이어 올해는 순천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내년에는 광주에서 회원전을 열 계획이다.

강맹순 작가는 푸르른 순천만의 보리를

화폭에 담아 선보이며 강순애·김명지·이경현·장복자 작가는 민화 작품 여러 점을 내걸었다.

서원길 작가는 힘든 세상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나눔’, ‘늘 머물렀던 그리움... 어머니’ 등을, 정원석 작가는 사계절 풍경을 담은 서양화 작품을, 최승우 작가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내놓았다.

그밖에 김용률, 김지영, 노영현, 박근수, 박순덕, 정기문, 정기석 작가 등 15명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프닝은 14일 오후 2시. /이연수 기자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까지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P&J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